

순천시, 광주·전주 이어 호남 3대 도시 됐다

11월말 인구 28만2618명...익산시보다 36명 많아 생태도시 정책 기반 안전·교육·힐링 등 정주여건 조성

순천시 인구가 전북 익산시를 추월하면서 호남에서 광주, 전주에 이어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로 성장했다.

2일 순천시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순천인구는 28만2618명으로, 28만2582명에 그친 익산시를 36명 앞질렀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볼 때 익산시는 28만7771명으로 27만9598명이었던 순천시보다 8173명이 많았다.

11개월 만에 순천시는 3020명이 늘었고, 반면 익산시는 5189명이 줄었다.

순천시는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광주와 전주에 이어 호남 3대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시는 생태도시를 지향한 도시정책을 기반으로 안전, 교육, 교통, 힐링 등 중장기적인 정주여건 조성에 중점을 뒀다.

올 상반기 전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90.3%가 '보통 이상의 만족한다'고 응답하면서 주거, 교통, 안전, 문화 등 도시 인프라 구축

을 통한 우수한 정주여건이 인구 유입의 원동력을 보여줬다.

순천시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 및 정착 지원을 위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하고, 민간·가정 어린이집 무상보육, 국공립 어린이집 지속 확대, 기적의 놀이터 조성, 친환경 무상급식, 중·고교 신입생 교복 무상지원 등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전남 최초로 다자녀 가정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해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기업 다동이 꿈 키움 사업으로 기업과 다동이 가정의 결연을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문화를 만들고 있다.

출산·양육, 아동, 청년, 중장년 등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혜택을 정리해 버스정보시스템, 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적극 알리려 결혼과 출산, 가족생활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형성에 기여



순천시 인구가 익산시를 추월, 광주·전주에 이어 호남 3대 도시로 성장했다. 사진은 순천시 전경.

하고 있다.

또 순천에 주소를 갖기 캠페인을 통해 실거주 미진 입 세대 전입 독려하는 등 바른 주소 갖기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 축하카드, 전입자 반려식물 제공, 인구 지키기 캠페인 등 특색 있는 읍면동 인구 시책 추진으로 시민들과 함께 인구 문제에 대한 공

감대를 형성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인구수만으로 도시의 위상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 생태, 의료, 복지, 문화, 교육 등 전반에 걸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곡성군 자살률 10만명당 13.9명...전남서 가장 낮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큰 효과

곡성군이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낮았다고 나타났다.

2일 통계청의 2019년 사망 원인통계에 따르면 곡성군은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이 13.9명으로 조사돼 전남 22개 시·군 중 가장 낮았다.

이는 2018년 10만명당 27명에 비해 절반가량으로 낮아진 것으로, 전국 평균 26.9명, 전남 평균 25.4명과 비교해도 눈에 띄게 낮은 수치다.

곡성군은 자살률이 낮아진 이유로 곡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이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했다.

센터는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우울증 검사 및 정신 건강검사 등을 추진하며, 군민들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만 10세 이상 주민의 11%에 해당하는 3200여명을 대상으로 우울증 및 정신건강 검사

를 실시,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했다.

자살 고위험군 주민들은 정신과 전문의 상담을 제공하는 등 지속 관리했고, 치료가 필요한 주민들에게는 치료비와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노인 고위험군들을 대상으로는 '삶이 가장 빛나는 지금'이라는 정신 건강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우울감 예방, 생명 존중 의식 사업을 펼쳤다.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번개탄 판매 행태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역 숙박업소와는 '생명 사랑 숙박업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살과 밀접한 음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 주류 판매 업소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토닥토닥 병따개' 사업도 진행 중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우울감 등을 느끼신다면 언제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곡성군 정신차매팀 직원들이 자살 예방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곡성군 제공>

“지역 중소기업과 함께 가자”

여수시의회·㈜서브윈·지역 경제단체, 물류 상생 협약

여수시의회와 물류기업 ㈜서브윈이 지난달 27일 지역 경제단체와 함께 상생 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서브윈은 여수국가산단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준공했으며, 지역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매출 타격 우

려가 커지자 상생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여수시의회는 이날 의회 소회의실에서 ㈜서브윈, ㈜여수산단경영자협의회, ㈜여수경영인협회, 여수상공회의소, ㈜중소기업융합 여수융합회와 협약을 맺고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식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과 김희재 의원, 서은수 여수시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여수시의회는 지역 중소기업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서브윈에게 '여수시민의 파트너가 되길 기원한다'는 내용의 감사패를 전달했다.

협약에 따라 ㈜서브윈은 여수지역 중소기업과 매입 규모를 유지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여수 지역으로의 판로 확대, 여수시민 우선 채용 등을 약속했다. 또 협약 참여기관은 '여수지역 중소기업·서브윈 상생위원회'를 구성, 운영하

기로 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7월 제203회 임시회에서 '상생방안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으며, 8월6일 서브윈 물류센터를 찾아가 상생협약 체결을 제안했다.

전장군 여수시의회 의장은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이 있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상생협약을 통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솟아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구례지역 수해 주민들 섬진강댐 대량 방류 책임 환경부·수공 관계자 고발

폭우와 섬진강 범람으로 피해를 당한 구례 주민들이 댐과 제방관리 기관 관계자들을 형사 고발했다.

섬진강 수해 참사 구례군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국토교통부, 홍수통제소 관계자들을 과실일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일수죄'란 수도관리나 치수 등을 잘못해서 물을 넘치게 하는 죄를 말한다.

대책위는 수자원공사와 영산강홍수통제소 책임자들이 뒤늦은 댐 대량 방류의 책임이 있으며 상위 감독 기관인 환경부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제방 관리를 부실하게 한 국토부도 무관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수해가 발생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정부의 사과나 명확한 원인 규명, 피해배상이 없다"며 "피해자들은 단칸짜리 임시 주택에서 겨울을 맞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이번 재난은 정부의 물관리 실책으로 야기됐지만 수자원공사와 환경부, 정부는 매뉴얼대로 대응했다며 무사과, 무조사, 무처벌로 일관해 왔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적어도 연내에는 피해 배상에 대한 윤곽이라도 나오길 바란다며 피해 100% 배상과 위자료 지급, 사과 등을 촉구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광양항서부컨테이너터미널 광양항 컨부두 통합 운영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운영사인 SM상선광양터미널(SMGT)과 광양항서부컨테이너터미널(GWCT)의 통합이 완료됐다고 2일 밝혔다.

운영사 통합은 SM상선이 보유한 SMGT 지분 97.86%를 GWCT가 인수해 SMGT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임금, 복지조건 등에 대해 SMGT 노동조합과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공사의 중재로 해결됐다.

통합 협의의 개시 6개월 만에 통합 작업이 마무리됐다.

공사는 통합 운영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79억원 규모의 임대료를 유예·분납하도록 했으며 항만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하역 장비 16기 이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SMGT 부두의 하역 장비 5기를 GWCT 부두로 우선 이전했으며, 통합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임대료 유예·분납 방침을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난처한 순간

정확한 과실비율 정보로
명쾌한 순간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웹페이지,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털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 상담]